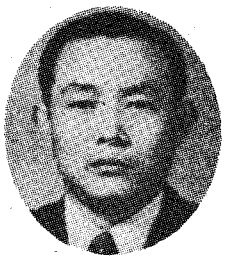
성인병 관리 씨리즈

만성간장병의 管理



柳 東 俊
〈醫博·慶熙醫大敎授〉

우리나라 B型간염 보균자 10~14%

1、만성간장병이란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암을 위시하여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과 함께 만성간장병은 주요한 만성퇴행성질환으로서 5대 성인병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인 주요 사망원인이 되기때문에 크게문제시 되고 있다.

이 만성간장병 (Chronic Liver Diseases) 은 그 병인, 병소, 형태및 분류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성인병관리 측면 특히그 自然病歷과의 상호관계면에서볼때 가장 문제시 되는 주요간질환은 만성 (B형) 간염과 간경화증, 그리고 간암이 되겠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는 이 B형간염 (Viral hepatitis B), 간경화증 (Liver Cirrhosis) 및 원발성 간암 (Primary Hepatoma) 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그 本態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 진단, 치료및 예방에 관하여간단하나마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B형간염, 간경화증 및 간암의 관계

A) B형간염

B형간염은 수혈과 관계가있기 때문에 한때는 혈청간염이라고 불렀었다. 그러나 나중에 B형간염에서 Australia 抗原 또는 HB 항원이라고부르는 HB virus가 혈액속에서 발견되었다. 사실 B형 간염의 대부분은 수혈이나 혈장제제의 주사를 맞을때 옮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賣血제도가 허용되어 더욱 B형간염이 많이 퍼졌다.

B형간염은 대개 급성감염후 발병하여 2~3개월지나면 70~80%는 치유되지만, 나머지 20~30%는 치유되지않고 만성화된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다만 안정을 제대로 안했다든가, 술이나 약물을 함부로 마시거나 잘못 썼다든가,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다든가, 계속되어 重感染이 되었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지적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불분명하다. 특히 청소년층보다는 40代 이후의 중년기나 노년기에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성간염이 되면 여러경과가 있지만, 만성활동성 간염을 거쳐 간경화증으로 잘진행되는 것이다.

B) 간경화증

간경화증은 모든 간장병의종착역이다. 사실, 우리가 간장병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바로 이 간경화증때문일것이다. 만성간염의 대부분에선 보통경과가 길어서 진행과 악화를반복하면서 수년내지 10여년 정도로 경과하여 간경화증으로진행하는데, 일부는 (편) 急性肝壞死나急性電擊性肝炎에서 바로곧 약 6개월 전후해서 급히 간경화증이 되는예도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간경화증의 원인이 될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코올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것도 있고, 그외에 약물이나 독물등에 의한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 말하자면여러가지 원인에의한 간장병의종착역이 바로 간경화증이라고할 수 있겠다. 그런데 B형간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후속되어 야기되는 後壞死性간경화증이 크게 문제되고, 이에관련해서 原發性간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다. 사실 이後壞死性간경화증환자의 약 25~25%에서간세포성 간암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C) 간암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특히남성에선 위암 다음으로 가장많은 암이다. 앞에서 밝힌 바처럼 간암은 특히 B형 바이러스 간염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 간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B형간염의 오염지역과 일치함이 역학적으로 밝혀지고있다. B형간염은 HB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HBvirus는 급성간염을 일으키고, 만성이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혈액 속에 남는 병독증이다. B형간염 환자의 혈액을 조사해보면 HB항원이 발견되는데 이 항원이 간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이아닌가 의심을 받고있다. 일부에서는 바로 이것이 간암바이러스라고 주장하고도 있다.

간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 대개 말기에가서 증세가 나타난다. 또 대부분 간경화증을 동반한다. 간암발생에는 여러가지 원인이있겠으나, HB Virus로 인한 B형간염이 만성화하여 10여년 지나면 강경화증으로 되었다가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이 많다. 그외에도 환경인자와 공해로 인한 여러가지 발암물질과, 또 여러가지 약물들도 간의 손상을 가져와 발암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주목되고있다.

3、주요 만성간장병들의 진단과 검사

A) B형간염

B형간염은 A형에 비해 잠복기가 길고 (50~160일),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이나 혈액응집억제시험 (Ha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등에의해 혈청내에서 간염B표면항원 (HBsAg)을 검출함으로써 진단을위시한 검사를 추구해 나갈수있다. 간염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되기전에는 이병은 수혈이나 혈장제제 등의 주사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요사이 HB sAg에 대한검사방법이 널리 이용됨에 따라 B형간염은 非經口的경로를 거치지 않고서도 감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구감염은 간염B 표면항원 (HBsAg) 에 오염된 소량의 혈액이 접촉이나 키스, 性交, 상처, 치솔의 사용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대개 이런경우는 잠복기가 매우 길다. B형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에 의해 여러가지 다른모양을 한 입자들로밝혀졌다. 진단을 위하여 이HB virus의 전자현미경상 소견을 좀 설명하면, 그중 많은 입자는 HBsAg인데, 20~22nM의 크기로 혈청내 농도는약 50 mg/dl이다. 좀더 큰 입자는 Dane 입자로서 크기는 42~44nM이고, 표면은 HBsAg으로, 중심은 HBcAg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그 내부에는 DNA polymerase와 DNA가 존재하나, HBcAg에 대한 검사와 마찬가지로 널리 이용되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항원인 e抗原 (HBeAg) 은 바이러스내의 성질이나 위치 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Nielson등에 의하면 e항원이 발견되면 예후가 불량하고 만성활동성으로 진행되는수가 많다고 한다.

B) 간경화증

간경화증의 진단은 이에 의심되는 제반 증상과 간기능검사, 기타의 여러 검사소견들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경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주요 증상과 진단을 위한 『실마리』를 간단히 몇가지 언급하면, 보통 간질환에서 볼수 있는 황달같은 일반증상 이외에 腹水, 의식혼탁 또는 혼수, 기묘한 태도, 손떨림, 기억력 감퇴같은정신신경증세 등의 특유한 증상을 들 수 있다. 또 더욱 불량하고 치명적인 것으로는 食道靜脈瘤에서의 대출혈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예에서는 이 전부터 간이 나빴다고 말하며, 대개 증세로서 3~6개월전부터 노곤하다 피로하기쉽다 배가팽팽하다 등의 소위 간장병의 증세가 계속되어 차츰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 보통이다. 그외에 Estrogen등의 대사 이상으로 거미상血管腫, 손바닥·발바닥에 홍반이 생기고, 남자의 경우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여러가지 증세와 과거에 수혈을 받은 경험이있거나 만성간염을 앓은 病歷등을 종합하거나 참고하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성간염, 기타의 간질환과 구별, 또 같은 간경화증이라도 초기인지 진행된것인지 심한 염증을 수반하고있는지등에따라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관리대책을 위해선 腹腔鏡검사나 肝生檢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C)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첫째로유의할 것은 이미 만성간염이나 간경화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환자가 있으면, 그 증세가 가벼더라도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간암탐색을 위한 특수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간기능검사, 알파-태아단백검사 (a-Petoprotein), X-선검사, 간주사, 針生檢, 복강경검사, 때로는 초음파주사등의 제반 최신 특수검사방법을 통하여 진단하나 불확실할 때는 開腹하는 방법도 있다.

B型, 수혈·주사·접촉·상처통해 감염 — 발병후 20~30%만성화 — 간경화 → 간암이 일반적 —

B型간염豫防이 肝질환의 急所 — 감염모원천과경로차단, 백신예방접종통해서 —

간기능검사에는 Alkaline-phosphatase의 상승 외에 S·G·O·T·등의 상승을 볼수있으며, 면역반응으로는 α-Fetoprotein이 약 70%에서 陽性으로 나오고, 간주사에서는 동위원소의 色調가 얕은 부위를 보이고, 肝內動·靜脈촬영을 보면 결손 부위를 위주로한 소견을 볼수있다. 이렇게 간암의 의심이 가는부위가 확정되면 이것을 표적으로 針生檢을 해서 조직소견을 보는데, 대개 간경화증소견이나 또는 적소에 침이 적중되지 못한 탓등으로약 75% 정도의 확진율을 보인다. 복강경검사는 복벽의 小孔을통해서 간을 살펴보는 방법인데, 이것으로도 밝혀지지않을 때에는 시험적으로 개복해서 조직을 떼어 조직세포검사를 하여야한다.

4、치료

A) 만성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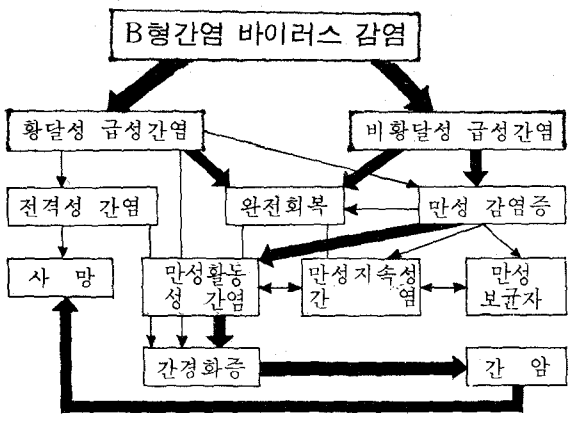
만성간염 치료의 목표는 활동성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치사율을 낮추며, 간경화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 억제하는데 두고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케하는 특효약은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활동성으로 진행중인 때는 급성간염때와 같은 일반 대증치료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안정은 활동기에 필요하며, 약물은 특별히 시행할만한 것이 없으나, 생명에 위험이있는 초기엔 Prednisolone따위 등을 적절히쓰면 다소간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약은많은 부작용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 면역억제제 (Azathioprine따위)도 간혹 사용하여 다소 효과를보기도 하나 연명효과는 Prednisolone 제보다 적다고한다.

B) 간경화증

간경화증에는 특효약은 없으나 병형별로 나누어 일반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後壞死性간경화증

이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발병원인을 모르기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적당한 안정·휴양만이 그치료의 한 방책일 따름이다. 그러나 腹水가 있거나 혼수가 나타나면 그증세에 대한 대증치료를 함으로써 위험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다. 식도정맥류가 있을때는 外科的 수술로써 어느정도 바로잡을수있다.



※굵은 화살표는 특히 주의.

〈그림〉 B형간염 바이러스感染후 自然進行경과

②Laennec씨 간경화증 (알콜성 간경화증)

이 病型은 비교적 졸복하므로 되도록 일찍하여 의사의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받아야한다. 식사요법으로는 단백질을 1일 체중 1kg당 1g의 비율로주고, 열량은 2천~3천 Cal의 高칼로리 식사로 한다. Vitamine 제를 주는 수도 있다. 복수나 부종이 있을때는, 증세가 가벼우면 安靜으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증세가 심하면 염분을 5g이하로 제한하고 수분도 제한하며, 이뇨제를 쓰기도한다. 그러나 전해질의 결핍이나, 혈액량을 감소시켜 肝性수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뇨제등은 매우 조심해서 써야한다. 또한 단백질도 1일 20~30g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③담즙성 간경화증

이病型은, 다른 병이 원인이되어 속발성으로 발병된경우엔 달리 새는것을 막는 치료를 해야하고, 처음부터 原發性으로 생긴 경우에는 여러가지 합병증, 즉 가려움증, 腹水, 門脈壓亢進症, 肝不全등의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가려움증등이 심할때는 멘톨 따위를바른다든가, 진정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나, cholestilamine을 쓰기도 한다. 식사요법은 영양소가 고루 배합된 고칼로리식사가 표준이지만, 잘낫지않는 설사를 할때는 지방을 30~40g이하로 줄여야 한다. 복수나 부종이 있을때는 소금을 제한하고 이뇨제를 쓴다. 위나 식도의 정맥류가 터지면 즉시 門脈大靜脈吻合術같은 수술을 한다.

C) 간암

간암의 치료는 매우 비관적이다. 그러나 환자의 나이가 젊고 또 일반상태도 좋고 다른 곳에 알세포가 이전되지 않았을 때는 부분적인 간절제수술로 효과를 보는 수도있다. 항암제 (5FU또는 Methotrexate등) 를 써서 수개월동안 연명 효과를 보는 수는있다.

5、예방

만성간장병의 예방은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B型간염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첫째, 개인위생관념의향상으로 感染源이나 전파경로의 차단하는것과, 두번째로 B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능동면역으로 예방하는것이 제일이다.

이를 위해서 근래에 여러방법으로 좀 더 안전하고 보다 효과가 높은 「백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Hevac B파스퇴르 백신」은 유명한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전감한 보균자의 피를 원료로하여 순수表面抗原 (HBsAg) 만을 정제하여 맏든것이므로 HBcAg나 HBeAg가 혼재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안전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하여튼 안정하고 효과가 높은 「간염백신」을 대상자 모두에게철저히 예방접종하여 간염을 예방하여야 하겠다.